

답답한 코로나 시대, 문화강연 온라인으로 누린다

광산구 5개 구립도서관, 11월까지 '인문 독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밴드·앱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구민들 호응

“코로나19로 답답한 생활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좋은 문화 강연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광주 광산구 5개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을 실시해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5개 구립 도서관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한다는 원칙 아래 각 도서관이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이용객 취향을 감안한 특색을 갖췄다.

이야기꽃도서관은 독서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과 인문 독서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인문학 '그림책으로 떠나는 근현대사 여행' 프로그램을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네이버밴드'와 '줌' 앱(app)으로 볼 수 있고, 관련 그림책을 읽으며 실시간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장덕도서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 네이버밴드 앱을 활용해 '도서관에서 피렌체 미술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앱을 이용하는 독서 동아리 회원 등 시민들은 책

'피렌체 미술 산책' 저자인 강화자 작가의 안내로 피렌체 미술관을 여행하듯 작품을 감상하며 위안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첨단도서관은 줌 앱으로 시민들과 '한 달간 책 한 권 함께 읽기-온라인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여 큰 인기를 끌었던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가도서관과 운남어린이도서관도 '길 위의 인문학'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신가도서관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19 시기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주제로, 인문-생태학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대상으로 '숲 탐방'을 기획하고, 심신의 피로까지 풀어준다. 야심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지난 7일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이 참가하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램 'AI-SW의 기적-아! 너도 할 수 있어'를 진행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산구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영상자료를 올리면 아이들이 보고, 실습 과제를 강사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관계자가 광산구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코로나19에 따라 차를 타고 책을 빌리는 드라이브 스루 등 무인스마트 도서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3300억 규모 '광산형 행복뉴딜' 26개 핵심사업 온라인 생중계 김삼호 청장, 구민과 소통 강화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춰 구정 현안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20일 오후 4시 '광산형 행복뉴딜 온택트(on-Tact) 시민 대화'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광산형 행복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광산구가 마련한 지역주도형 뉴딜 정책이다.

광산구는 민선 7기 2년 성과인 '안전 광산'을 토대로 매력·활력·품격 부문 뉴딜로 구성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3개 부문 아래에 3300억원 규모로 8대 분야 26개 핵심사업의 '광산형 뉴딜 정책'을 온라인을 통해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 구청장이 직접 나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번 온라인 구정 현안 설명은 일선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손주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김삼호 구청장이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대담형식을 통해 설명한다. 이번 광산구의 '행복 뉴딜 정책'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 생중계되는 40분 동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간 댓글로 소통이 가능한 만큼 행사 당일 광산구 공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togethergs)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직원 호우피해 망월묘지공원 복구 '구슬땀' 광주도시공사 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망월묘지공원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망월묘지공원은 산사태로 일부 토사가 흘러들면서 140여기의 묘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달 내 마무리를 목표로 연휴기간에도 휴일 없이 중장비와 작업인원을 대거 투입했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쌍암동 시대' ...기능 한층 강화

육아거점기관 고품질서비스 제공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도

광주시는 지난 18일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구에서 광산구로 확장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8년 2월 개소한 이후 네 번의 장소 이전을 거쳐 지난 7월 광산구 쌍암동에 단독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 등 포괄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광주시에서는 24시간 돌봄체계인 긴급아이돌봄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긴급아이돌봄센터는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영유아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월-금요일(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서 토요일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주말 긴급보육에 대비하고 있다. 이용요금도 시간당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놀이시설인 '키움플'도 신규 설치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키움플'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만0-5세 영유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18일 북구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광주 관내 어린이집도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1일 3회, 개인은 화요일-토요일까지, 어린이집은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요금은 개인은 2000원, 어린이집은 1500원이다. 센터는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임신·출산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이용섭 시장은 개소식에서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광주의 육아거점기관으로써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 설치되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늘려 보육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